

군산영광여고, 추수감사절 맞아 나운2동 라면 기탁

✎ 김기현 | ⓒ 승인 2025.11.21 11:03

캠페인 통해 모은 20박스 행복나눔 공유공간 전달



군산영광여고가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 마련한 라면을 나운2동에 기탁했다. ©군산시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교장 송윤이)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1일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영광여고가 2025 추수감사 Festival을 통해 모은 65만 원 상당의 라면 20박스를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감사와 함께라면' 캠페인을 통해 십시일반 라면을 모았다. 학생들은 1봉지부터 1박스까지 스스로 준비한 라면을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작게 가져온 라면 한 봉지가 쌓이면서 큰 나눔이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윤이 교장은 "감사는 주어진 삶 속에서 깨닫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감사를 나누는 마음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영광여고 학생들이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성이 담긴 라면이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김기현 sisando7@naver.com